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이야기

알버트 카이델(Arbert Keidel)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IBRD 재직〉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1년 동안 KDI에서 일을 하며 머문 일이 있다. 다른 3명의 연구원과 한방을 쓰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 방에서는 언제나 경제이론과 한국의 경제개발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나의 한국인 동료는 바둑을 매우 좋아했다.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 나에게는 매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 바둑판을 응시하고 난 후 경제연구에 대한 오후의 일과를 시작하려면 통계 숫자 대신 검은 돌과 흰 돌이 내 눈에서 춤을 추듯 어른거렸다.

사실 70년대 중반에 KDI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점심시간에 바둑을 두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바둑을 계속 둘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연기 자욱한 방에 별

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 방에도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김만제 원장이 우리 방에 있는 한 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급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오후 근무시간인데도 바둑을 두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원장은 즉시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는 어느 시간대를 막론하고 바둑을 일체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바둑금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원장의 지시로 사무국 직원이 퇴근 후 각 방에 있던 바둑판과 바둑알을 모두 회수해 갔다.

김 원장의 이 조치는 한국 경제의 기적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KDI를 이끌어 온 지도력과 행동력 같은 결연한 조치였다. 이 일로 바둑을 전면 금지당한 바둑 애호가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원망을 받았으며, 그들을 노하게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또 한 가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한국 농가의 실태를 조사했을 때의 일로, 연말과 연초 사이에 한국 농가에서는 곡물 재고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일이다. 이런 통계치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었으며,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내용을 아는 것은 나에게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연간 곡물 재고의 증가가 나의 농가소득 추계(推計)에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농림부에 가서 물어 보았다. 농림부 직원은 이 통계를 한동안 검토한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부터 신년 사이에 농가의 곡물 재고가 보통 때보다 감소하는 이유는 그 기간에 한국에는 전통적인 명절인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에는 떡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가정이나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나는 한국 정부가 곡물 재고 조사를 1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많은 비축 곡물이 1월 중에 방출되어 판매된다는 것도 알

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설날에 푸짐한 음식과 떡을 만들어 먹고 즐긴다는 명절 풍속을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풍속이라고 부러워한 일도 있었다.

KDI에서 일하며 박사학위 논문자료를 수집한 1년 동안 나는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여러 요인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 준 동료들과 임직원 여러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김만제 원장께 많은 빛을 지고 있다.